

노년소설을 활용한 문학치료의 실제*

장미영** | 전주대

<목 차>

1. 문학작품의 치유적 효용을 위한 모색
2. 노년소설과 노년 독자
3. 노년을 위한 치유적 독서 전략
4. 남은 문제

1. 문학작품의 치유적 효용을 위한 모색

이 논문의 목적은 노년 독자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고 더불어 남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문학작품을 효과적으로 읽을 수 있는 전략적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특히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문학의 독자 중심적인 실용적 가치의 측면을 새롭게 조명하는 것이며 동시에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한국사회가 선진적 노년문화를 조성하는데 일조하는 것이기도 하다.

* 이 논문은 필자가 2005년부터 현재까지 10년 넘게 노인 대상 독서교실을 진행하면서 경험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독서교실을 진행한 지 1년 만에 필자는 노인 대상 독서교실 현장 경험을 논문화한 바 있으나(장미영, “노년의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한 소설독서요법”, 『문학치료연구』, 제4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06., “장미영, “고령화시대의 선진적 노년문화 조성을 위한 소설 독서교육 방안”, 『국어문학』, 제41집, 국어문학회, 2006.), 당시는 경험이 적어 시행착오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후 실험적으로 시도한 여러 가지 독서 방법 중 성공적인 결과를 낳았던 치유적 독서 전략을 중심으로 앞선 논문을 수정하고자 한다.

** 전주대학교 기초융합교육원 조교수.

일반적으로 사람은 노년기로 접어들면서 사회적 관계망이 감소 내지 단절됨으로써 사회적 상호작용이 현저하게 줄어든다. 이러한 현상은 노인 본인들의 욕구와는 별개이다. 그 결과 노인들은 주변 환경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됨으로써 자아존중감이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노인들은 쉽게 좌절하며 강한 열등감으로 인해 불안한 심리상태와 함께 소극적인 생활태도를 갖게 된다.¹⁾ 독서는 이러한 노년의 부정적이고 병약한 심리를 역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촉매로 작용할 수 있다.

문학작품 중 특히 소설은 서사적 상상력 안에 내재해 있는 공감능력과 치유적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런 근거로 소설 독서는 노인의 위축된 신체적·정신적 변화를 상상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자기 치유적 매체가 될 수 있으며, 판단력이 흐려져 아집이 강해지는 상황에서도 타인의 삶과 자신의 삶을 견주어 봄으로써 비교적 냉철하게 거리를 두고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볼 수 있는 자아 개선책이 될 수 있다. 소설은 상상력을 통해 즐거움을 맛보고 공감을 통해 깊이 있게 사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소설은 그 대상이 인간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표출할 수밖에 없는 말과 행동을 근거로 여러 가지 행위의 이유와 그와 관련된 다양한 삶의 의미를 드러냄으로써 우리의 실존을 자각할 수 있게 만든다. 소설 독서는 작품에 나오는 이러저러한 사건과 세세하게 묘사되는 소소한 일상, 치밀하게 서술되는 은밀한 인간 내면의 욕망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만든다. 소설 독서는 남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고 남의 인생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깨닫게 하며 남의 활동상을 통해 자신의 활동을 돌아보게 한다. 그래서 소설을 읽는 독자는 독서활동 중에 ‘나와 다를 바가 없구나’라든가 ‘딱 내 이야기네!’와 같은 자아 인식에 쉽게 도달할 수 있으며 ‘세상에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라거나 ‘꼭 나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도 생각하는구나!’ 라는 식의 인식 전환까지 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자아인식이나 인식의 변화들이 감정적 치유작용을 일으켜 인생의 활력으로

1) 강병만, “회상을 주제로 한 집단미술치료가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인복지학회, 『노인복지연구』, vol 24, 2004년 여름호, p.157.

작용할 수 있는 장점이 소설 독서의 효용적 가치이다.

노년소설과 노년 문화를 연결 지어 소설의 실용적 가치를 밝히려는 본고의 시도는, 소설 작품의 의미와 가치를 소설 연구자 중심이 아닌, 일반적인 대중 독자 중심의 소설 체험과의 연관성 속에서 새롭게 발견해 보려는 노력의 일단이다. 이는 소설의 의미를 효용적 가치의 차원에서 살펴보는 것으로, 소설 소비자에 대한 동시대적 기대 지평을 확장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2. 노년소설과 노년독자

한국의 현대소설사를 살펴보면 전통사회의 가치관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노인들과 현대사회의 가치관에 의거하여 행동하는 젊은이 간의 갈등 내지 세대 간 단층을 문제적으로 지적한 내용들이 종종 등장한다. 이에 해당하는 작품으로는 황순원의 『나무와 돌』, 이문구의 『우리 동네』 연작, 전상국의 『고려장』, 최일남의 『흐르는 북』, 김원일의 『미망』, 임철우의 『어머니의 땅』, 이청준의 『눈길』, 박완서의 『석양을 등에 지고 그림자를 밟다』, 은희경의 『금성녀』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작품들은 시대적 층위의 노년소설이라 할 수 있겠다. 한편 노인의 삶을 사회 문제적 현상으로 바라보는 김원일의 『슬픈 시간의 기억-나는 누구인가, 나는 나를 안다, 나는 존재하지 않았다』, 전성태의 『퇴역 레슬러』, 박완서의 『그리움을 위하여』, 송하춘의 『스핑크스도 모른다』, 신경숙의 『달의 물』, 김훈의 『저만치 혼자서』 등은 사회적 층위의 노년소설로 분류할 수 있다.²⁾

이 글에서 특히 주목하는 소설 작품은 사적 층위의 노년소설이라 할 수 있는 홍상화의 『동백꽃』, 박완서의 『지 알고 내 알고 하늘이 알건만』, 윤이형의 『대니』, 박민규의 『누런 강 배 한 척』, 김훈의 『언니의 폐

2) 류종렬, “한국현대노년소설 연구사”, 『한국문학논총』, 제50집, 한국 문학회, 2008, pp.505~527 참고.

경』, 박완서의 『여덟 개의 모자로 남은 당신』, 박범신의 『당신』 등을 들 수 있다.

본고에서는 시대적 층위에서든, 사회적 층위에서든, 사적 층위에서든 이 야기의 중심 영역이 주로 노년의 삶을 다룬 것이거나 노인이 초점화자로 설정되어 있는 작품을 모두 노년소설로 간주하고자한다. 노년소설의 특징은 노년에 닥치는 쇠약, 병고, 궁핍, 소외, 단절 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든, 부정적으로 바라보든, 전반적인 기조가 상실과 죽음의식에 닿아있다는 것이다.

상실은 노인의 대표적인 특성으로, 이 때문에 노년은 긍정적이기보다는 거부해야 할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인생을 설계할 때, 노년의 삶은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하는 것으로, 즉 꿈 꿀 수 있는 인생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 결과 노년은 막아야 하고 걱정해야 할 불운이며 예측 가능한 재앙으로 인식되고 있다. 노년에 대해 다분히 부정적인 의미로 남발되고 있는 ‘고령화 쇼크’³⁾나 ‘노화 방지’, ‘주름살 예방’, ‘노후 대책’ 등의 용어가 이를 증명한다.

언제부터가 노인이라는 용어는 ‘은퇴, 정년퇴직 등을 기점으로 사회생활을 접은 사람’을 지칭하는 의미로 전화되기에 이른 것이다. 산업사회에서 생겨난 정년 제도는 연령이나 건강 상태에 관계없이 퇴직 여부가 한 개인을 노인으로 규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⁴⁾ 흔히 일상에서 속어처럼 사용하는 ‘그 사람 이제 노인 다 됐다’는 말은 존경이나 공경과는 거리가 먼 의미를 띠게 되었다. 즉 ‘노인’이란 사회적인 효용성을 상실한 무가치한 사람과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다. 경제력의 상실, 건강의 상실, 기억력과 지력의 상실, 사별로 인한 가족과 친구의 상실, 오감 능력의 상실, 사회적 지위의 상실 등은 오늘날 대표적인 노인의 특성으로 간주되고 있다.

통계청(2001년 12월)의 자료에 의하면, 한국 사회는 2000년에 이르러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2%를 넘는 고령화 사회가 되었다.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2019년에는 노인 인구 14.4%로,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에 이어 우리나라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 박동석 외, 『고령화 쇼크』, 굿인포메이션, 2003.

4)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노인과 한국사회』, 사회문화연구소, 1999, p. 23.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한 사회적 합의와 달리, 체감적으로는 대체로 남성 노인은 직장에서의 정년퇴직 이후를 노년으로 여기고, 여성 노인은 손자를 본 후를 노년으로 여긴다고 한다. 어찌되었든 어느 샌가 노년은 눈에 띄게 길어졌다. 아이 양육에다 직장생활까지 겹쳐 분주했던 젊은 시절에 비해, 노년은 자신만의 삶을 만끽할 수 있는 여유로운 시간이다. 더욱 길어진 노년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인생의 맛을 제대로 느끼며 일상을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도 하고 희망이 없는 애처로운 시간이 되기도 한다.

이제 노년은 단순히 인생을 회고하고 죽음을 대비하는 지나간 삶의 정리 기간이지만은 않게 되었다. 아무리 노년이라 할지라도 심신은 쇠약할망정 명예와 가치를 추구하려는 열정과 패기의 정신만은 죽음에 이를 때까지 잃지 않아야 한다. 인간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계속 '존엄한' 인간으로 남아 있고 싶은 욕구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한 인간이 인생의 마지막 10~40년의 긴 세월을 사회로부터 도외시당하고 외면당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면, 그것은 인류 역사의 퇴보이자 현대문명의 비극이다. 수 천 년 동안 인류가 꿈꾸었던 생명 연장에 대한 희구가 성취된 오늘날, 오히려 노년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꿈을 잃는다면 연장된 생명은 저주나 형벌 이외의 그 무엇도 되기 어렵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지적(知的) 활동은 노년에도 존엄한 인간으로 남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다.

독서는 노인이 되어서도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는 지적 활동이다. 특히 소설은 다른 장르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인들이 소화하기 용이한 독서 자료이다. 소설의 큰 강점은 독자 개개의 삶에 기초한 다양한 해석을 허용하고 인정하는 탄력적인 장르라는 것이다. 더구나 소설 독자는 단순히 작가의 메시지만을 추수하는 수동적인 독서 체험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적 에너지를 생성해 낼 수 있기까지 하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도 노년의 소설 독서는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지향해 나아가야 할 바이다. 인생의 온갖 희비와 신산을 맛 본 노년에 읽는 소설은 그 어떤 다른 나이의 독서보다도 훨씬 성숙한 반응을 생산해 낼 수 있고 실제 인생 경험과의 체험적 연관성 속에서 다분히 생생한 의미를 생성해낼 수 있으리라 기대되기 때문이다.

지식기반사회로 불리는 21세기를 슬기롭게 보내기 위해, 우리 사회에서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독서 교육에 열성을 쏟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는 노년 세대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노년에 접어들어 이러한 시대적 요청을 노인 스스로 외면한다면 그것은 일종의 자포자기가 될 것이다. 같은 이유로 우리 사회가 노년 세대에게 이러한 시대적 필요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노인의 사회적 추방에 다름 아니다.

소설 독서는 독자가 책을 읽는 내내 작품 속에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거리낌 없이 투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독서 과정 중에 독자는 감정적 안정과 정서적 만족을 얻게 된다. 이러한 만족감은 독자의 삶에 새로운 감각을 선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 효과 때문에 소설 독서는 상실감과 허무감에 시달리는 노인들의 불안정한 심리를 위로하는 감정치료의 효과까지를 기대할 수 있게 한다. 최근 들어 각광받고 있는 독서 클리닉은 이러한 독서의 치료 효과를 입증하는 것이다.

노인들이 차세대와의 시대적·문화적 거리를 좁히는 방안으로도 소설 독서는 권장할만하다. 노인은 실제 삶의 현장에서보다 소설을 통해서 젊은 세대의 삶과 문화를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고 그들의 편에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생활 현장에서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젊은 세대들의 은어나 유행어도 소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 세대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는 결과를 낳게 된다. 게다가 독서하는 노인의 모습은 그 자체로도 차세대의 모범 내지 귀감이 되는 바람직한 이미지로 자리매김 될 수 있다.

3. 노년을 위한 치유적 독서 전략⁵⁾

1) 읽을거리 선정 방법

-
- 5) 이 글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위치해 있는 <안골노인복지회관>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위치해 있는 <노인취업지원센터>, <양지노인복지관>에 나오시는 어르신들 덕분에 쓸 수 있었다. 이 지면을 빌어 <안골노인복지회관>과 <양지노인복지관>, <노인취업지원센터>의 독서교실에 참여해주신 어르신들의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다.

독서거리를 선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고려가 필요하다.

- 첫째, 동일시할만한 노인의 삶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가.
- 둘째, 노년의 삶에 지침이 될 만한 모델링의 대상이 있는가.
- 셋째, 노년독자의 인식 전환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인가.
- 넷째, 노인이 현재 당면한 어려움을 문제시하고 있는 소설인가.
- 다섯째, 노인에게 미래의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 면역력을 키워줄만한 소설인가.

첫째, 노년기 독서를 위한 소설 작품을 선정할 때 가장 먼저 유의해야 할 것은 동일시가 가능한 소설인가의 여부이다. 소설을 읽으면서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것 중의 하나는 소설 속의 중심인물과 독자인 ‘나’를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이다. 중심인물이 ‘꼭 나를 보는 것 같다’면 독자는 편안한 마음으로 독서를 진행할 수 있다. 동일시를 통해 독자는 먼저, 소설 속에서 자기 자신을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계기가 마련됨으로써 자기 자신이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의식하게 된다. 이와 아울러 독서를 통한 동일시는, 삶에서 느꼈던 긍정적인 정서를 추억을 통해 반추하는 즐거운 추체험의 기회가 되기도 하고 그 동안 억압해왔던 부정적 정서는 독서 과정에서 일어나는 카타르시스를 통해 배설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독서를 통한 동일시는 노년의 정신 건강을 지켜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그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독서거리는 모델링할만한 작중인물이 있는가의 여부이다. 노년기에도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성장과 발달을 희망한다. 이때 자신의 삶에 지향점이 되는 어떤 인물은 행동 패턴의 모델링이 된다. 모델링은 여러 가지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면 행동거지, 외모, 대화 방식, 인간관계, 거주지의 시설물들, 라이프스타일, 세계관 등이 그것이다. 모델링의 대상은 독자의 실제 삶과 상당한 거리가 있을지라도 독자에게 삶의 지침이 되는 한편 대리 만족의 충만감을 안겨줄 수 있다.

셋째로 고려해야 할 독서거리는 세상과 사물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만한 소설인가의 여부이다. 노인이 되면 아집이 강화되어 유연한 사고가 어렵게 된다. 이러한 노년의 완고한 정서는 자신의 관점과 전혀 다

른 인물의 삶을 자주 대면함으로써 회색시킬 수 있다. 흔히 노인의 세계관이나 관점을 ‘고루하다’라고 표현한다. ‘고루하다’는 말은 낡은 사상이나 풍습에 젖어 고집이 세고 변통성이 없어 세상과 발맞추지 못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노년기의 정서적 특성상 쉽게 고루함에 빠질 수 있는 노인들의 인식 전환을 위해서는 자신과 전혀 다른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이야기나 다른 성(性)의 삶의 양태 등 전혀 다른 각도에서 자기의 삶과 비교·대조해 볼 수 있는 소설이 필요하다. 인식 전환 능력은 자신의 원래 관점과 똑 같지 않은 경우에 배양된다. 자신의 가치관이나 관점과 전혀 상반되는 경우를 접할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새롭게 돌아보게 되고 생각을 수정할 수 있는 여지를 스스로 타진해 보게 된다. 이러한 기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관용의 폭이 넓어지게 된다. 특히 사고의 경직이 완강한 노인들은 독서를 통해 인식 전환의 기회를 자주 가짐으로써 열린 사고, 유연한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다.

넷째로 고려해야 할 독서거리의 노인 독자가 지금 당장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과 비슷한 경우의 내용이 있느냐의 여부이다. 부부문제, 자녀와의 문제, 경제 문제, 신체상의 문제, 사고, 실직, 사별, 외로움, 소외감 등의 노인 문제는 노인들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정서를 위협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인간이 느끼는 희, 노, 애, 락, 애, 오, 욕 등의 정서는 소설 양식이 추구하는 바이다. 소설은 독자로 하여금 이러한 정서를 느끼도록 구조화된 고안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슷한 경우나 처지의 등장인물이 있다면 독자는 공감을 통해 스스로 위로 받고 힘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실제 세계에서는 노인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제대로 이해해줄 사람이 드물다. 그런데 소설 독서 체험을 통해서만 비록 상상이지만 의사(pseudo) 체험이 가능하다. 소설 독서는 독자 자신과 비슷한 어려움이 있는 등장인물과 독자의 역할이 바뀌기 때문에, 등장인물은 내담자의 자리에 위치하게 된다. 이때 독자는 작중인물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신의 처지를 관찰하고 공감하고 이해하고 분석하는 상담자의 역할을 떠맡게 됨으로써 자신이 느끼는 고통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실마리를 스스로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독자는 소설을 읽으면서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통을 다른 사람들도 겪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해 강한 유대감과 소속감을 아울러 느끼게 된다.

다섯째로 고려해야 할 독서거리의 장차 발생할지도 모르는 불운의 경우를 대비할만한 소설인가의 여부이다. 질병의 발생 가능성이 예측되면 우리는 미리 예방 접종을 함으로써 면역력을 키운다. 예방 접종이란 발생 가능한 질병의 균을 체내에 약간만 주입함으로써 항체를 만들어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을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노년은 그 어떤 시기의 인생보다 상실이 많아 슬픔과 불안, 분노, 우울, 좌절 등을 많이 느끼게 된다. 소설 독서는 노인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불운한 사태에 실제로 직면하기 이전에 미리 의사-체험을 하도록 유도할 때도 유용하다. 소설을 통해 노인들은 자신이 맞이하더라도 모를 불운한 사태를 가정하고 미리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은 다음 그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있도록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노년의 소설 독서는 불운에 대한 예행 연습 내지 불운 극복 훈련책으로서도 모색되어야 한다.

2) 독서 전 활동

① 스키마 활성화를 위한 발문

글을 읽고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독서를 시작하기 전에 읽을 글의 내용을 예측해 보거나 생소한 개념 혹은 어휘 등에 대해 미리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입을 글의 내용을 예측할 때는 발문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발문이란 교육학 용어로서, 교수-학습 과정에서 사용하는 질문을 일상에서 사용하는 질문과 구분하여 일컫는 말이다. 문학치료에서 사용하는 발문은 치료사가 내담자의 독서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물어보는 문제제기의 의미를 담고 있다.

치료사: 이 시간에 읽을 작품은 홍상화 소설가의 단편소설 「동백꽃」입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64세 된 남자 교수입니다. 1년 전에 아내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교수는 80이 넘는 노모를 모시고 있습니다. 노모는 성미가 까다로운데다 대소변을 받아내야 할 정도로 많이 아프습니다. 이 교수는 재혼하는 게 좋을까요?

위와 같은 치료사의 질문에 대해 독자는 스키마를 활성화시키게 된다. 스키마(schema)란 독자가 겪은 과거의 경험이나 지금까지 쌓아 온 지식들

노년소설을 활용한 문학치료의 실제

을 토대로 새로운 경험을 친숙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즉 스키마란 어떠한 사건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판단하고 수용하는 행위이며 무엇이 지각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고 통제하여 환경에 대한 개인의 경험을 구축하는 기능을 한다.

치료사는 참여자가 자신의 스키마를 동원하여 다음과 같이 치료사의 발문에 응대하도록 한다.

참여자: 주인공 교수는 재혼 (하는/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_____(이)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이 치료사의 발문에 대해 참여자는 먼저,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한 후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한다. 치료사의 발문에 대한 참여자의 응대가 자유로운 답소의 형태로 이루어지면, 자칫 독서 전 활동이 너무 길어져서 그 다음 단계의 독서 활동에 지장을 주기 때문이다. 답소란 여러 사람이 모여 웃고 즐기면서 한가로운 한담을 나누듯 말을 주고받는 형식이다. 이러한 답소 형식은 지력과 체력이 저하되어가는 노년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할 때, 가장 편안한 독서 전 활동이기는 하나, 결과적으로는 효과적인 문학치료로 이어지기 어렵다. 필자의 경험으로 볼 때, 노인의 특성 중 하나는 말의 시작과 멈춤이 어렵다는 것이다. 노인들은 한 번 어떤 말을 시작하게 되면 중단 없이 이어나가려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기 때문에 한 가지 활동을 시행하고 그것을 제 시간에 멈추거나 끝을 내기위해서는 참여자 스스로 자신의 발화를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틀이 필요하다.

② 비유와 유추를 활용한 개념 훈련

독서 중에 모르는 개념이나 어려운 어휘의 양이 많으면 독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을뿐더러 독서 자체에 흥미를 잃게 된다. 이러한 사태를 미리 막기 위해서는 독서 전 활동에서 어려운 어휘나 중요한 개념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어려운 어휘를 사전에 숙지시킬 때는 우선, 그 어휘가 들어가는 짧은 글을 만들어 보게 한다.

참여자:

인공지능은 인간을 넘어설 수 있다.

유비쿼터스는 정보통신환경을 말한다.

이처럼 어려운 단어를 포함한 짧은 글짓기에 이어 그 다음으로는 직유, 은유, 상징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비유적 언어활동으로 나아간다.

(직유의 활용) ‘인터넷은 거미와 같다. 왜냐하면 두 개의 망을 서로 연결 하면서 사방팔방으로 뻗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은유의 활용) ‘유비쿼터스는 하느님이다. 왜냐하면 하느님이 아니 계신 곳 없이 곳곳에 계시는 것처럼 유비쿼터스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징의 활용) ‘알파고는 인공지능이 인간 지능을 넘어서는 인공지능의 미래를 상징한다.’ 알파고에 패한 바둑기사 이세돌은 인간 지능의 미래를 상징한다.

작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작품의 내용과 연관시킨 유추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유추(analogical inference)는 유비 추리(類比推理)라고도 하는데,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현상들이 어떤 속성이나 관계 또는 기능이나 구조 등에서 일치하거나 유사하다고 가정하고 그것이 또 다른 현상의 어떤 속성이나 관계 또는 기능이나 구조 등에서도 역시 일치하거나 유사하리라고 추리하는 논리적 사고 기법이다.

(반의어 관계로 된 유추) ‘추함과 아름다움의 관계는 탐욕스런 전처 자식과 병 수발드는 후처의 관계와 같다. 왜냐하면 이타적인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 옆에 있을 때 그 진가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유의어 관계로 된 유추) ‘단추와 코트의 관계는 후처와 주인공 교수의 관계와 같다. 단추 없는 코트는 추위를 막을 수 없고, 코트 없는 단추는 그

존재마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독서 전 활동은 읽을 내용에 대해 독자적인 의미만을 생각하거나 표면적인 이해만을 하고 지나가기 쉬운 독자들에게 깊이 있게 독서를 할 수 있는 밑받침을 해주는 것이다.

3) 독서 중 활동

① 낭독 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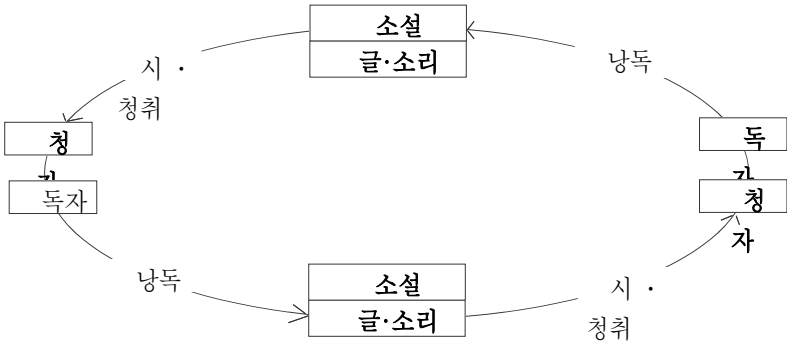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직·간접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언어는 이러한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언어는 인간 상호간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고 전달받는 매개체이기에 전달 내용이 정확하고 분명해야 한다. 그래야만 인간 상호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그런데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점차 부정확하고 불분명하게 바뀌기 쉽다. 노인들한테서 흔히 나타나는 건망증이나 치매도 언어 수행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독서는 이러한 노년의 약점을 보완 내지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노인들이 소설을 읽을 때 일반적인 소설 독서의 관행처럼 혼자만의 묵독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노인의 소설 독서는 모임을 만들어 여럿이 돌아가면서 낭독을 하는 방법이 무척 효과적이다. 소설 낭독 모임은 말벗이 그리운 노인들에게 상호 대화 상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장이 된다. 뿐만 아니라 소설 낭독은 목소리를 내어 읽는 것이기 때문에 발성 기관 및 발성에 사용되는 안면 근육을 자극함으로써 발음 교정과 함께 발성 기관이나 안면 근육의 퇴화를 막는 이점이 있다. 낭독 시에는 단순히 소리만을 내는 것이 아니라 어린애들한테 동화 구연을 하듯, 역할극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하다. 이것은 지문과 등장인물의 소리를 구분하고 등장인물도 각각의 특징에 따라, 즉 남녀 성별에 따른 구분이나, 노인, 중년, 청소년, 어린이 등의 나이에 따른 구분 혹은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동물 등의 특징을 드러내는 역할극의 형태로 서로 다른 소리를 내는 구연 형태의 낭독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이로써 노인들은 대화 능력 혹

은 언어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

소설 낭독을 통한 상호 독서는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한 독자가 소설책의 글을 소리를 내어 낭독하면 다른 독자는 동시에 소설책을 시·청취하는 상황이 된다. 이어 청자였던 독자가 다시 낭독자가 되는 순환 과정이 반복되면서, 소설의 낭독 독서는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언어 정보의 처리 능력이 증가하게 된다. 인간의 언어활동은 기본적으로 듣고 읽은 내용을 사고 활동을 거쳐 고도화한 뒤 말하기와 쓰는 방식으로 표출되고 이로써 언어 능력이 점차 향상되는 과정으로 나아간다. 소설 낭독 모임에 참여한 독자들은 서로를 통해 언어 정보 처리 능력을 배가할 수 있다. 개별 독자들은 소설 낭독을 통해 다른 독자들의 언어 정보 운영과 처리 방식을 시·청하면서 자신의 언어 수행력을 조정, 개선, 향상시킬 수 있다. 게다가 구연이나 역할극 방식의 소설 낭독은 소설에 담긴 글을 보는 순간 책의 내용을 분석하고 분류하는 동시에 언어 표현력까지 신장시키는 활동으로 전환·발전될 수 있다.

② 의미 단위별 독서

노인이 되면 일반적으로 시력과 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다. 이로써 책 내용에 대한 이해력과 이해의 속도도 아울러 떨어지게 된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의미 단위별, 즉 센스 그룹(sense group) 단위로 책을 읽는 것이다.

빠른 이해의 기본은 문장을 하위 의미단위별로 읽으면서 이해하는 것이다. 정보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글자 하나하나를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의미 단위로 이해하면서 받아들인다. 글자 하나하나를 읽어 가면 읽는 속도도 느려지고 이해하기도 힘들다. 예를 들어 10초라고 하는 단위 시간 안에 정보를 전달하면서, “사·람·은·누·구·나·능·력·있·는·사·람·이·되·기·를·원·한·다·…”처럼 천천히 한 글자씩 또박또박 말한 경우와 “/ 사람은 누구나 /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 원한다. / 능력 있는 사람이란 / 자기가 맡은 일을 / 잘 처리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한 경우,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두 번째, 즉 많은 정보를 빨리 전달한 경우가 이해의 측면에서 훨씬 유리함을 알 수 있다. 즉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나가면 읽는 속도도 느리고 이해도 잘 안 되지만, 의미 단위로 끊어 읽으면 더 빨리 읽게 되고 이해도 쉽다.⁶⁾

의미를 가진 언어 단위는 형태(morph)에서 출발해서 단어(word), 구(phrase), 절(clause), 문장(sentence), 문단(paragraph), 글(text)로 확장되어 간다. 이 중에서 완전한 의미 전달의 기본 단위는 문장이다.

일반적으로 한 문장은 ‘주어부+술어부’로 구분되어 있고, 이 주어부와 술어부가 확장되어 복잡한 문장을 이루게 된다. 따라서 문장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장을 이루고 있는 하위 구성요소들을 의미 단위로 끊어 읽음으로써 가능해진다. 또 이 의미 단위는 낭독 독서를 할 때 숨을 쉬는 호흡 단위(breath group)이기도 하다. 이것을 ‘의미 단위로 읽기’라고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6) 원동연 외, 『정보화시대의 속해학습법』, 태학사, 2004, p.34.

자신이 / 겁 없이 살았다는 것은 / 전혀 / 사실이 아니었다. / 첫 아내가 / 등산 중 심장마비를 일으켜 / 갑작스레 / 세상을 등진 후부터 / 겁이 나기 시작했다. / 겁은 / 나이 차 많은 / 지금의 아내와 재혼한 이후에도 / 사라지지 않았으며, / 폐암 선고를 받은 후에는 / 더욱 많아졌다. / 다가올 죽음 때문이 아니라 / 혼자 남을 / 새 아내 때문이었다. / 아내를 위해 / 생각나는 대로 / 할 일은 했으나 / 그래도 뭔가 / 꼭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는 것 같아 / 조바심을 / 떨쳐 버릴 수 없었다. /

아파트 문제는, / 결혼하고 반년 후에 / 55평짜리를 팔아 38평짜리로 옮기고 / 그 차액을 / 딸과 두 아들에게 / 나누어 주었다. / 38평짜리 아파트는 / 1년 전 / 폐암 진단을 받기 몇 개월 전에 / 아내 앞으로 증여해 놓았으니 / 자신의 사후에 / 아내가 살 집은 / 마련해 준 셈이라고 / 생각했다. / 그리고 / 아파트 차액을 / 세 아이에게 / 골고루 나누어 주었으니, / 자식들에게 / 아직까지 / 애기는 하지 않았지만 / 작은 아파트의 명의를 / 아내 앞으로 했다고 해서 / 섭섭해 할 아이들이 아니라고 / 그는 생각했다. / 심성이 고올 뿐만 아니라 / 세 아이 모두 / 경제 사정이 / 나쁜 것도 / 아니었기 때문이다. /

7)

위와 같이 의미 단위로 책을 읽을 때는 사선을 치거나 혹은 사선 칠 부분에 가볍게 점을 찍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선을 칠 때는 한 눈에 읽을 수 있을 정도의 단위별로 끊어, 이해되는 범위만큼씩만 읽어나가게 하는 것이다. 시력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신체 기능이 떨어진 노인의 경우는 사선 치는 동작을 하는 동시에 안구의 움직임이나 호흡을 사선 단위별로 조정하면서 낭독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③ 도형을 활용한 가시(可視) 독서

소설 작품을 제대로 감상하면서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심미적인 독서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소설은 느낌(feeling)을 통해서 재미와 감동을 불러일으키도록 쓰인 글이다. 따라서 소설 독서는 실용적인 읽을거리와는 달리 단순한 이해를 넘어서 글쓴이와의 감정적 교류를 통해 글의 주제를 이해하도록 하는 데 관건이 있다.

7) 홍상화, 「동백꽃」 일부.

대부분의 소설 작품은 이성보다는 감성을 통해 독자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글쓴이는 자신이 의도하는 주제를 심미적인 방식으로 글 속에 내재시킨다. 이에 독자는 스토리를 따라가면서 자신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글자로 전달되는 작중 상황이나 사태, 분위기, 등장인물의 심리 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노인이 되어 기억력이 현저히 감퇴되면 흔히, ‘책을 덮고 돌아서는 순간 금방 무엇을 읽었는지 잊어버린다’고 한탄하게 된다. 이렇게 기억력이 약한 노인들이 소설 독서를 할 때는 독서한 내용을 쉽게 환기할 수 있는 가시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그것은 독서 행위 중에 눈으로 확인 가능한 도형을 활용하는 것이다. 동그라미, 네모, 세모 등의 단순 도형이 그것이다.

도형을 활용한 독서 방법으로는 예컨대 가장 초보적인 단계의 경우, 독서 과정 중에 마음에 드는 부분에는 동그라미를 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에는 세모를 치는 식이다. 혹은 독서 모임을 활용한 독서인 경우는, 회원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 즉 토론 거리가 될 만한 부분에 네모를 치면서 읽는 식이다. 스토리를 파악하기 힘든 소설인 경우는 스토리를 복원하는 데 필요한 실마리가 될 만한 부분에 이러한 도형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독서 방법은 소설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능력을 독자 스스로에게 체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독서는 자기 스스로의 작품 이해력이나 감상 능력을 갖지 못하면 남이 해놓은 감상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점차 독서에 흥미를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독서 능력이 배양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서를 하게 되면 책 속의 글은 마치 한 편의 정물화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활력을 잃게 된다. 특히 소설 독서는 글의 의미보다는 글 속에 숨어 있는 느낌을 발견함으로써 인간적인 관계맺음을 지향한다. 그렇기 때문에 감동과 감성의 환기가 반복적으로 지속되면 될수록 작품을 음미하는 기회는 증가하게 되고 이로써 독자는 작품 감상 능력이 향상되는 효과를 직접 체험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도형을 활용한 독서 과정 훈련은 무척 간단하면서도, 모든 지적 활동의 근본이 되는 언어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다룰 수 있는 언어 독해의 힘을 키워주기 때문에 소설 외의 다른 독서 영역으로 쉽게 확장·전이될 수 있다.

④ 애니어그램을 활용한 인물 분석

소설에는 등장인물들 사이의 갈등이 중요하게 게재되어 있다. 소설의 줄거리만 따라 가다보면 갈등의 원인과 해결과정만 정리될 수 있다. 소설을 감정치료의 촉매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줄거리 정리에서 더 나아가 등장인물의 특징적인 성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치료사가 참여자로 하여금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을 애니어그램(enneagram)의 9가지 유형에 기대어 분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애니어그램의 9유형>

순서	유형	강점	약점	개선 방법
1	완벽형	① 정의감이 강하다. ② 자신에게 철저하다. ③ 일처리가 정확하다. ④ 완벽을 추구한다. ⑤ 스스로 모범을 보인다. ⑥ 꼼꼼하다.	① 완벽하지 못한 것을 두려워한다. ② 기대치가 높다. ③ 심각하게 일한다. ④ 늘 긴장해 있다. ⑤ 잔소리가 많고 딱딱하다. ⑥ 세세한 것까지 챙긴다.	①내면의 분노 인정하기 ② 감정 안 숨기기
2	조력자형	① 관대하다. ② 친절하다. ③ 예리한 직관이 있다. ④ 공감을 잘한다. ⑤ 타인을 이해한다. ⑥ 헌신적이다.	① 수치심을 두려워한다. ② 남에게 너무 정성을 들인다. ③ 자신의 욕구를 모른다. ④ 원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다. ⑤ 지나치게 관계를 중시한다. ⑥ 분노, 슬픔을 드러내지 않는다.	①자신의 욕구 찾기 ②내면의 소리 듣기 ③ 거절해보기

노년소설을 활용한 문학치료의 실제

3	성취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에너지가 많다. ② 자신감이 많다. ③ 결과를 만들어낸다. ④ 유능하다. ⑤ 창의적이다. ⑥ 효율적으로 일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실패를 두려워한다. ② 지나치게 성공에 매진한다. ③ 일을 너무 벌인다. ④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⑤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자기를 과신한다. ⑥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실패 인정하기 ② 업무 이외의 즐거움 찾기 ③ 자신에게 진실하기
4	낭만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섬세하다. ② 이해심이 많다. ③ 동정심이 많다. ④ 자연친화적이다. ⑤ 개성 있게 문제를 해결한다. ⑥ 영감을 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평범한 것을 두려워한다. ② 변덕스럽고 싫증을 잘 낸다. ③ 자의식이 강하다. ④ 죄의식이 많다. ⑤ 비판을 싫어한다. ⑥ 지나치게 섬세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객관성 유지하기 ② 감정의 균형잡기 ③ 직설적인 평판 듣기
5	사색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식을 추구한다. ② 현명하게 판단한다. ③ 분석력이 뛰어나다. ④ 문제의 핵심을 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모르는 것을 두려워한다. ② 내성적이고 말이 적다. ③ 자신만의 공간을 원한다. ④ 모임을 즐기지 않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동료들과 어울리기 ② 사람 만나기 ③ 몸을 움직이기

		<p>고든다.</p> <p>⑤ 끈기가 있다.</p> <p>⑥ 위기대처능력이 좋다.</p>	<p>⑤ 고집이 세다.</p> <p>⑥ 남들의 이목을 불편해 한다.</p>	
6	충성가형	<p>① 꾸준한 노력을 한다.</p> <p>② 협동심이 있다.</p> <p>③ 책임감이 높다.</p> <p>④ 실질적, 전략적이다.</p> <p>⑤ 문제를 예견한다.</p> <p>⑥ 끈기가 있다.</p>	<p>① 안전하지 못한 것을 두려워한다.</p> <p>② 경계심이 많다.</p> <p>③ 지나치게 순종적이다.</p> <p>④ 규칙을 중시한다.</p> <p>⑤ 권위자에게 의지한다.</p> <p>⑥ 걱정이 많고 방어적이다.</p>	<p>① 머릿속 걱정 떨치기</p> <p>② 독단 끊기</p>
7	공상가형	<p>① 열정적이다.</p> <p>② 명량하다.</p> <p>③ 여러 일을 동시에 해낸다.</p> <p>④ 아이디어가 많다.</p> <p>⑤ 시각화에 탁월하다.</p> <p>⑥ 일상을 즐긴다.</p>	<p>① 고통을 두려워한다.</p> <p>② 진지함이 부족하다.</p> <p>③ 타인의 어려움에 공감하지 못한다.</p> <p>④ 구속당하는 것을 싫어한다.</p> <p>⑤ 평범한 일을 싫어한다.</p> <p>⑥ 집중을 못하고 반복적인 일을 피한다.</p>	<p>① 고통 피하지 않기</p> <p>② 끈기있게 기다리기</p>
8	보스형	<p>① 단호하다.</p> <p>② 결단력이 있다.</p> <p>③ 솔직하다.</p> <p>④ 권위가 있다.</p> <p>⑤ 팀원을 끝까지 책임진다.</p> <p>⑥ 현실파약능력이 뛰어나다.</p>	<p>① 약한 것을 두려워한다.</p> <p>② 느린 사람을 싫어한다.</p> <p>③ 참을성이 없다.</p> <p>④ 팀원을 착취하고 남에게 상처를 준다.</p> <p>⑤ 타인에게 높은 기대치를 갖는다.</p> <p>⑥ 친밀함에 거리를 둔다.</p>	<p>① 자애로운 마음 기르기</p> <p>② 남에게 자신의 문제 이야기하기</p>

9	조 정 형	① 겸손하다. ② 가식이 없다. ③ 인간관계가 깊다. ④ 타인의 장점을 발견한다. ⑤ 전체 맥락을 파악한다. ⑥ 순수한 모습을 보여준다.	① 갈등을 두려워한다. ② 우유부단하고 일을 미룬다. ③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한다. ④ 남의 부탁을 잘 들어준다. ⑤ 변화를 싫어한다. ⑥ 급한 일을 부탁하면 갈등한다.	① 자신의 가치 인정하기 ② 목표 설정하기
---	-------------	---	--	----------------------------

애니어그램은 ‘애니어(ennear, 9, 아홉)’라는 단어와 무게, 힘의 단위를 나타내는 ‘그라마(grama, 그램)’라는 단어의 합성어로서, 그리스어로 ‘아홉 개의 점이 있는 그림’을 뜻한다. 원과 아홉 개의 점, 그리고 그 점들을 잇는 선으로만 구성된 애니어그램에 의하면 인간은 누구나 9가지 성격 유형 중 하나를 타고 태어나며 유형별로 다른 관점과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을 9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각 인간내면의 행동동기와 패턴을 이해하고 의식의 성장으로 나아가는 문과 같은 것으로, 지난 2천년동안 신비주의 세계에서 은밀하게 전해져 오다가 1950년대 미국의 심리학자들에 의해 과학적으로 검증되면서 국제적인 보급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⁸⁾

작품 속 사건의 발단과 갈등의 원인을 인간내면의 행동동기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위의 애니어그램에 기대어 작중 인물의 특징을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다. 홍상화의 「동백꽃」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 주인공 남자 교수:
 - 목표를 설정하고 그 일을 추진하여 성취한다.
 - 가족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를 원한다.
 - 독립적인 편이고, 자기주장을 잘한다.

8) 정동민의 자기변화연구소, <http://blog.naver.com/PostView>, 참조.

● 후처

- 조용하게 있는 것을 좋아한다.
-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지 않는다.
- 타인과 경쟁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 헌신적이다.
- 사람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알아주던 그렇지 않던 기꺼이 희생한다.
- 사람들이 화나게 할 때 반응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쓴다.

● 둘째 아들

- 분노를 표출한다.
- 자기 주장이 강하다.
- 자신감이 넘친다.
- 약자를 착취한다.

● 사위

- 실질적이며 성취동기가 높다.
-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중요시한다.
- 자기 주장이 강하다.

에니어그램으로 볼 때, 작중 후처는 헌신적인 조력가형이라 할 수 있다. 후처와 적대적 관계에 놓이는 둘째 아들과 사위는 타인의 감정에 개의치 않고 자기주장이 강한 성취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후처가 제대로 노후를 보내게 하기 위해서는 노교수가 유연장을 다시 써야 한다. 이에 참여자는 작중 후처를 옆두에 두면서 본인이 작중 노교수가 되어 유연장을 다시 작성하게 된다. 이상과 같이 참여자는 작중 인물의 성격을 정리한 후 각 인물이 어느 타입에 속하는지를 고민해 보고, 등장인물 각각의 성격에 따른 갈등 유발 원인 및 갈등 해결 방식을 논의한 후 작품 속 내용과는 다른 방식의 갈등 해결을 새롭게 모색해본다. 이로써 작중 등장인물의 행동거지와 참여자가 제시한 갈등 해결 방식을 비교하면서 주인공에게 미치는 이해득실을 따져볼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이후 참여자 본인 자신의 분자기 작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은 참여자의 적극적 독서 방식은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결국 참여자 자신이 처한 환경과 자신의 처신에 대한 이해와 성찰로 나아가게 만든다.

4) 질문지를 활용한 독후 활동

독서를 통해 입수된 정보는 가공이 되어야만 고급 정보가 된다. 즉 소설의 내용은 독서 과정을 거쳐 심화 또는 내면화 되어야 독자에게 유용한 정보로 체화될 수 있다. 같은 내용이라도 독자가 그것을 분류하거나 정리하거나 질서를 세우거나하면 그 내용은 단순히 어떤 의미만을 띠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내용이 되어 많은 효용성을 가지게 된다.

독후 활동은 마치 새가 하늘을 날면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지상의 상황을 파악하듯이, 하나의 소설 작품 전체를 조망하면서 그 전체를 꿰뚫는 논리나 법칙을 찾아낼 수 있는 힘을 키워줄 수 있어야 한다. 독후 활동은 독서 과정 중에 일어났던 단편적인 느낌이나 조각 정보 등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전체를 보는 안목을 열어주는 한편, 부분이나 조각으로 존재하는 느낌 혹은 정보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상관관계를 살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독자는 부분과 전체를 구분하여 인식하되 그 관계를 정밀하게 밝힐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될 수 있다.

노인 독자의 독후 활동으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읽은 내용을 마인드 맵핑(mind mapping)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진 노인들에게 마인드 맵핑 방법은 오히려 독서에 대한 좌절감을 안겨주는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크다. 따라서 질문지를 활용하거나 구두로 질문하는 방법을 통해 읽은 내용을 정리하고 독서 중에 미처 깨닫지 못했던 내용을 확인하는 정도로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질문하는 방법은 예컨대 ‘왜 이 글의 제목이 「동백꽃」 일까요?’ 라거나 ‘이제 갓 오십을 넘은 작중 후처는 왜 재혼을 했을까요?’ 또는 ‘주인공 교수의 유산 처리 방식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후처의 재산을 빼앗으려는 전처 자식에 대해 후처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본인이 작중 후처와 같은 일을 당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와 같은 식이다.

참여자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치료사는 동백꽃의 특성을 통해 작품의 제

목과 작중 후처에 대해 숙고하게 유도한다. 동백꽃의 특징은 다른 꽃들과 달리 피었다가 시들지 않고, 활짝 핀 상태에서 떨어져 버린다는 점이다. 이러한 동백꽃의 속성은 마치 작중 후처가 자신의 헌신적인 가족 돌봄의 마음을 그대로 유지한 채 호스피스 삶으로 전환시키는 것과 연결시킬 수 있다. 여러 사례 중 하나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치료사:

소설가 김훈은 ‘동백’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동백은 한 송이의 개별자로서 제각기 피어나고, 제각기 떨어진다. 동백은 떨어져 죽을 때 주접스런 꼴을 보이지 않는다. 절정에 도달한 그 꽃은, 마치 백제가 무너지듯이, 절정에서 문득 추락해버린다. ‘눈물처럼 후드득’ 떨어져 버린다.”

소설가 홍상화도 후처를 ‘동백꽃’에 비유했습니다.

○○○참여자께서는 홍상화의 「동백꽃」에 등장하는 후처를 어떤 꽃과 연결할 수 있었습니까?

독후 활동의 속성은 독서를 통하여 자기를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과 서로의 생각을 나눔으로써 승화작용을 경험하고 다시 이를 토대로 자아가 성숙하는 것이다. 독자는 독서를 통하여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분출시키고 자신의 상황을 개선·전환할 수 있다. 한 권의 작품을 독파하기까지 독자는 자신의 심리적·정서적 감정을 갈무리하는 인내와 자기 훈련을 수행한다. 따라서 독후 활동은 작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 자신의 정서를 정리하고 에너지를 얻는 시간이 된다.

4. 남은 문제

노년 독서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은 사회환경적인 것으로, 현재 우리 사회 노인들의 독서인구 비율이 매우 낮다⁹⁾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볼 때 노년의 소설 독서가 아무리 유용하고 효과적이라 할지라도, 노인들의 실제 생활에

9)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2000.

서 독서는 ‘남의 일’이기 쉽다. 우리나라에서 김노인, 정노인 식의 ‘노인’으로 불리는 대상과 ‘노인’이라는 호칭이 아닌, 선생님, 차장님 등의 전직을 연상시킬 수 있는 사회적 직급으로 불리는 ‘비노인’의 차이는 교육수준의 차이이기도 하다. 현세대 노인들의 교육수준은 매우 낮은 편이다. 무학 노인 44.3%를 포함하여 78.1%의 노인이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 달리 말하면 현세대 노인들은 활자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라고 할 수 있다.¹⁰⁾

한편, 현세대 노인들은 책을 구매할 수 있을만한 소득을 갖고 있지 못하다. 대부분의 노인들이 자녀로부터 생계비정도의 보조만을 받고 있는 실정 이어서 경제적인 안정성은커녕 독립성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불가피하게 신체적 능력이 저하됨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노인의 자발적 독서는 무척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구나 신체적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의 경우, 독서는 꿈에서조차 생각해낼 수 없는 낯선 활동이기 쉽다. 이는 노인 자신뿐만 아니라 수발을 담당하는 가족이나 간호사, 간병인들이 노인 독서의 필요성에 대한 자각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독서하는 노인의 모습은 무척 생소한 이미지이다. 독서하는 노인은 희귀한 소수의 부류에 속하거나 특별한 인물로 간주된다. 직업적으로 독서를 해야 했던 경력을 가진 노인들이라 할지라도 노년에는 책을 덮고 등산이나 여행 등의 독서 외적인 활동을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로 말미암아 현세대 노인의 모습은 지팡이, 바둑, 장기¹¹⁾ 등의 단조로운 몇 가지 활동 이미지에만 국한되어 있다. 이는 노년문화에 대해 우리 사회가 무심하게도 방치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독서를 노년문화의 하나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독서 장애 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가장 쉽게는 눈이 어두운 노인,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노인을 위해 책 읽어주기 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론을 조성하고 사회 분위기를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물론, 책을 구입하기 어려운 가난한 노인을 위해서 노인 도서관을 마련하

10) 정경희, “노인들은 왜 자신을 부정하는가”, 『당대비평』 vol 22, 2003년 여름호, pp.310-311.

11) 안옥희 외,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의 이미지에 관한 조사”, 『한국생활과학』, 제 11권4호, 2002.

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다. 직접적으로는 노인의 감수성과 취향을 반영한 책이나 노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글자의 크기가 큰 노인용 책도 출판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노인에게 적합한 노인을 위한 독서 전략도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독서가 노년 문화의 하나로 자리 잡을 수 있다면 그것은 현대의 부정적인 노인 이미지나 차별적인 노인 담론에 맞서, 이에 대항할 수 있는 긍정적인 노인 담론을 구축해 낼 수 있는 기반이 된다. 특히 다른 책에 비해서 비교적 이해가 쉽고 편안한 마음으로 읽을 수 있는 소설 독서는 노인으로 하여금 인간적인 품위를 유지하게 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재가치를 잃지 않게 하는 새롭고도 손쉬운 노년문화 조성 방법의 하나가 될 것이다.

노년 독서 문화가 정착된다면 노인은 출판물의 주요 소비층이 되는 한편 경제의 한 중요한 주체로도 부상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게 된다. 독서를 통해 노인들은 자신의 무궁한 가능성과 가치를 재발견하고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정보와 지식의 입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자원을 개발하여 새로운 인생을 도모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계층임을 스스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봉근, 『독서와 가치관 읽기』, 박이정, 2005.
- 김윤식·김미현 엮음, 『소설, 노년을 말하다』, 황금가지, 2004.
- 모티머 J. 애들러 외, 민병덕 역, 『독서의 기술』, 범우사, 1998.
- 류종렬, “한국 현대 노년소설 연구사”, 한국문학논총, 제50집, 2008.
- 문학을 생각하는 모임, 『한국문학에 나타난 노인 의식』, 백남문화사, 1996.
- 문학을 생각하는 모임, 『한국노년문학연구 II』, 국학자료원, 1998.
- 문학을 생각하는 모임, 『한국노년문학연구 III』, 푸른사상, 2002.
- 문학을 생각하는 모임, 『한국노년문학연구 IV』, 이화, 2004.
- 박동석 외, 『고령화 쇼크』, 굿인포메이션, 2003.
- 박수자, 『읽기 지도의 이해』,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 보건복지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1.12.
- 안옥희 외, 『한국생활과학』, 제 11권 4호, 2002.
- 여성한국사학회연구회 편, 『노인과 한국사회』, 사회문화연구소, 1999.
- 원동연 외, 『언어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시대의 속해학습법』, 태학사, 2004.
- 장미영, “고령화시대의 선진적 노년문화 조성을 위한 소설독서교육 방안”, 국어문학회, 『국어문학』, 제41집, 2006.
- 장미영, “노년의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한 소설독서요법”, 한국문학치료학회, 『문학치료연구』, 제4집, 2006.
- 전홍남, 『한국현대노년소설연구』, 집문당, 2011.
- 정경희 외, 『당대비평』 vol 22, 2003년 여름호.
- 최명숙, 『한국현대노년소설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 토니 부잔·베리 부잔, 『마인드 맵 북』, 평범사, 2002.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2000.
- 한국노인복지학회, 『노인복지연구』, vol 24, 2004년 여름호.
- 한국대학부설 평생교육원 독서지도사 교재편찬위원회, 『독서지도의 이론과 실제』, 이화, 2004.
- 한철우 외, 『과정중심 독서지도』, 교학사, 2001.
- 한철우·김명순·박영민, 『문학중심독서지도』,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2.

Abstract

The Reality of Literature Therapy Using Novels for the Elderly

Jang, Mi-yeong(Jeonju Univ.)

This study is an exploration for the possibility of how Korean novels can be read differently and a search for an advanced way to create a desirable elderly culture. In order to greet the 21st century that is based on knowledge and information, Korean society is making efforts for reading education of adolescents. Such needs of the time should be equally applied to the elderly.

Reading is an intellectual activity that people can do relatively easily at old age. Especially, novels are reading materials that the elderly can read more easily than other genres. The biggest strength of novels is that it is a flexible genre that allows various interpretations based on readers' individual life. In addition, readers of novels not only engage in a rather passive reading experience of pursuing authors' messages but can play a more active role of generating creative energy. This is another reason why novel reading at old age is something this society should actively pursue. Novels that are read at old age after experiencing various joy, sorrow, and hardships can draw much more mature reaction compared to reading at other ages and are expected to produce clear meanings in connection with the real life experiences.

If reading can settle as an elderly culture, it can become the basis of establishing positive discourse about the elderly against the negative images and discriminatory discourses about old people. Especially, novels that are easier to understand and less burdensome compared to other

genres can be an easy way to create a new elderly culture that help maintain the dignity and existential value of the elderly.

When the reading culture of the elderly is settled, old people will have the potential to be the main consumers of publications and important agents of economy. Through reading, the elderly will be able to rediscover the limitless possibility and value of themselves and will recognize that they are the competent components of society who can acquire information and knowledge, develop new resources, and pursue a new life.

■ 주제어: 노년소설, 노년독자, 문학치료, 비유, 유추, 애니어그램, 의미단위

■ Key words: Old age novel, Old age reader, Literary therapy, Metaphor, Analogical inference, Enneagram, Sense group

접수일자: 2016. 3. 27 심사일자: 2016. 4. 20 게재결정: 2016. 4. 28